

CJ제일제당, 美 'KCON LA'서 한식 알렸다

〈한류문화컨벤션〉

미국 현지서 '비비고만두' 폭발적 반응

CJ제일제당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스테이플스센터와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류문화컨벤션 'KCON 2018 LA'에서 한식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KCON 2018 LA'에 참가해 'bibigo Tasty Road(비비고 테이스티로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미국 현지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비고 만두'는 물론, '비비고' 주요 제품과 소스를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한 한식 메뉴를 준비해 한국 식문화 확산에 집중했다. 다양한 인종과 식문화가 융합된 현지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음식에 한식을 접목한 퓨전 메뉴도 판매했다.

또 한국 음식의 상징인 비빔밥을 콘(Cone)에 담은 이벤트성 한식 메뉴 '비비콘(bibi-cone)'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동·서양의 식문화를 결합한 형태의 차별화된 메뉴로, 햄버거, 샌드위치 등과 같이 간편하게 한식을 즐길 수



CJ제일제당 비비고 'KCON 2018 LA' 부스.

/CJ제일제당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밥과 나물, 고기, 잡채, 장류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빔밥 메뉴를 준비해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 이해도가 낮은 관람객들 대상으로는 대표 메뉴인 불고기 비빔밥을 추천했다.

'비비고' 브랜드와 한국 문화, 한식 등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성황리에 마쳤다. 롤렛

게임을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글 캘리그래피로 이름을 새긴 부채, 한글 문장 타투 스티커, 한국 음식 캐릭터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이벤트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함께 '한식 대표 브랜드 비비고'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크라운해태 임직원 300여명이 '유럽연합 오피셜월드레코드(EU OWR)'의 여름철 단일 장소 최대 눈조각 작품 제작 및 전시 부문 세계 최고 기록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크라운해태

크라운해태 무더위 식힌 '한여름밤의 눈조각전'

크라운해태제과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2018 한여름밤의 눈조각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111년만에 가장 뜨거웠던 올 여름 무더위를 시원한 눈조각으로 한방에 날렸다는 평이다.

개막식에서는 지난해 열린 '2017 한여름밤의 눈조각전'이 세계 기록 3대 인증기관인 '유럽연합 오피셜월드레코드(EU OWR)'에서 '여름철 단일 장소 최대 눈조각 작품 제작 및 전시' 부문 세계 최고 기록으로 인정하는 인증서가 전달됐다. 지난해 한국 최고기록 인증에 이어 세계에서 유일한 눈조각 퍼포먼스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크라운해태제과 임직원 300명의 눈블럭 조각은 저녁 6시에 시작했다. 거대한 눈블럭 160개를 동시에 조각하는 장관은 현장을 찾은 2만여 시민들의 눈길을 시원하게 사로잡았다.

연달아 늘어난 눈블럭에서 뿔어져 나온 냉기가 주변보다 5도 이상 온도를 낮췄고, 완성된 조각작품들은 예술성까지 갖춰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힐링을 선사했다. 시민체험용 눈블럭도 별도로 설치돼 시민들도 눈조각 체험에 참여해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도 만들었다.

어두워진 광화문 거리는 8시부터 화려한 미디어 아트로 밝게 빛났다. 완성된 눈조각들이 휘황찬란한 조명을 입고 아름다운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변신했다. 시민들은 임시로 설치한 벤치에 앉아 작품들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여름밤을 만끽했다.

/박인용 기자

통합물류협 청년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18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참가기업을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3회째로 9월 10일 서울 삼성동 코

엑스에서 열리는 올해 채용박람회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주관으로 열린다. 기업별 면접·채용상담 부스를 제공해 물류분야 취업희망자와 구인기업간 일대일 매칭하고 유망기업 홍보,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열리는 채용박람회는 매년 60여개 이상의 물류·제조·유통 등 기업과 4000명 이상의 구직자들이 참가해 왔다.

올해엔 특히 스마트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채용 성사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스마트매칭은 기업이 요구하는 전공, 자격증, 경력 등의 채용기준과 구직자들이 등록한 이력서를 자동으로 매칭해 구직자에게는 합격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참가기업과 구직자에게는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2018년 12월까지 스마트매칭 서비스를 제공, 인재 채용과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8월 13일 (음 7월 3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이다. 60년생 결과만큼과 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72년생 죽순은 비 온 뒤 잘 자라는 법이니 고난을 참을 것. 84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 말** 54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덜 힘들다는 걸 명심. 66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신중하게 맺는다. 78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따져야 하는 날. 90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으나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 소** 49년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친다. 61년생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기니 기쁘다. 73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라. 85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주의.
- 양** 55년생 들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 67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79년생 머리 아픈 일이 생기지만 오후에 잘 해결. 91년생 지나친 음주는 건강뿐 아니라 친구 사이도 멀어지게 한다.
- 호랑이** 50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62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가득 메우듯 기쁨이 넘치는 날. 74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86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모임장소에서 행동을 주의하라.
- 원숭이** 56년생 하나를 투자해도 열 개로 돌아오는 날. 68년생 꾸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8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탐하지 마라. 92년생 새로 시작한 일이 기대만큼 성과가 없다.
- 토끼** 51년생 자식 자랑할 일이 많아 즐겁다. 63년생 길 떠나려는 데 천둥이 치니 출발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75년생 지나간 인연이 생각나서 시골포다. 87년생 넓게 바라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보인다.
- 닭** 57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할 것. 69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성사되니 만남을 중시 여겨라. 81년생 앞서는 것이 타인의 시기를 받을 수 있다. 93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유지가 오늘은 최선.
- 돼지** 52년생 가족이라도 지나친 간섭은 피하는 게 좋다. 64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76년생 고지마 코양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88년생 내키지 않은 웃음을 웃어야 하는 쓸쓸한 날.
- 개** 58년생 기회가 주어저도 망설임이 많으니 결단이 필요. 70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 마라. 82년생 검은 옷 입을 일이 있겠다. 94년생 시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모든 일에 참여해 보자.
- 뱀** 53년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법이다. 65년생 검은 구름이 서서히 가시고 밝게 개미니 좋은 날. 77년생 아랫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면 이로운 일이 있다. 89년생 골치 아픈 일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해결.
- 돼지** 59년생 출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자. 71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거래가 잘 성사되겠다. 83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 95년생 꿀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먼저 마련하라.

김상회의四季 사십구제의 의미

전에 언급했듯이 파드마 삼바바의 사자의 서(死者의 書)에서 강조하는 것은 망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몹시 두려워 환영이며 환각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살아 있을 때 수행공력이나 선업공덕이 없는 중생의 경우는 물론 악업을 많이 지은 인물일수록 미래망량의 괴로움을 받아 사악처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살았을 때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상태들이 윤회계의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려움에 빠진 영가의 의식을 빛으로 인도하여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의 의식들은 실체가 아닌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펼치는 환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려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죽음 이후 펼쳐지는 모든 영과 의식의 행로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므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비밀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려주려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그의 생존 당시 알리는 것은 때가 이르다 생각했지만 시기가 무르익어 펼칠 수 있을 때를 위하여 그는 제자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다시 육체를 갖고 환생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하였다 한다. 몇 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제자들은 한 사람씩 세상으로 돌아와 비밀의 책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원래는 약 백 권의 분량이라 하는데 현재까지 모두 65권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책 내용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맨 처음 영국의 학자에 의해 사자의 서가 번역되어 출간될 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심리학자 칼 융은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고 극찬하며 직접 장문의 해설을 쓴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다. 어이됐거나 이 책 내용 중에 망자의 영가의 해탈을 위해 7일 단위로 계속 의례를 행하면서 사십구일 동안 불교의 경전을 읽어주어 망자의 영혼이 최소한 사악처에 떨어지지 않도록 독려한 내용은 대승불교권의 나라에는 매우 중요한 장례의식으로 자리 잡게 한 모티브가 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생과 사를 뛰어넘는 도과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일반인들의 경우에 있어 사십구일 간 인간 영혼이 중음의 상태를 거친다는 파드마 삼바바의 깨달음을 통한 통찰은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문화로서 사십구제를 지내는 것도 매우 당연한 의례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는 일 년에 한 번 올리는 기제사도 기피되고 있으니 육도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적 관점에서는 몹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3					
1		3	4		7	9		
	6						4	
	1			4	5		7	
4				8				
	2		6	7	3	4		
	5		2		9	7	1	
		1			6	9		
			7		3		5	

						4		
						8	4	9
				9	2			1
		4	7		9	2		
	5	3			2			
	1		8	4				7
8			3					2
	6						3	5
		7			5	1	8	

스도쿠 정답								
5	2	8	9	1	4	6	7	3
6	9	5	8	7	2	3	1	4
1	4	8	6	7	9	5	2	3
8	1	7	5	2	9	3	6	4
6	9	2	8	5	1	4	7	3
4	5	7	2	6	8	1	9	3
7	1	4	6	8	2	9	5	3
2	5	6	4	9	7	8	3	1
9	8	1	2	5	7	6	4	3
7	8	1	5	9	2	4	6	3
5	6	8	4	7	2	9	1	3
2	4	9	1	6	5	7	8	3
4	9	5	7	8	6	1	2	3
6	7	8	2	1	9	5	4	3
7	1	2	6	5	4	7	8	9
1	5	9	2	6	8	4	7	3
9	6	4	7	8	5	1	2	3
8	2	4	7	5	1	9	6	3

문제 제공= 보노스